

새로운 팬데믹,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다!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최 (5.2일(목))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2일(목) ‘넥스트(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을 주제로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대표 정책 포럼인 「건강한 사회 포럼」은 공중보건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자리로, 2023년 7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총 4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감염병 진단검사 분야의 기술수요와 활용 방안과,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 분야 미래 핵심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감염이사인 성홍섭 교수가 팬데믹 초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KIST의 김상경 박사가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최신의 진단검사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질병관리청 김갑정 과장이 신종감염병을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진단검사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원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장을 좌장으로 하여,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성원근 단장(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정윤석 과장(질병관리청)이 함께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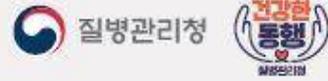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유행 대응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감염병의 진단검사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역량”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들과 감염병 유행 단계별 진단검사와 분석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 감염병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개요

담당 부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갑정	(043-719-7840)
		담당자	연구관	박재선	(043-719-7849)
			연구사	김현영	(043-719-7843)



2024년도 제5차
건강한 사회 포럼



NEXT 팬데믹을 대비한 새로운 진단검사 플랫폼의 활용

: 새로운 환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검사법 및
진단시약의 국내외 개발 동향 및 신속도입 방안 논의

2024. 5. 2. (목) 15:00 ~ 17:00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

프로그램

1 사회 | 박재선 보건연구원(질병관리청)

15:00~15:05 개회사 지영미 청장(질병관리청)

15:05~15:25

발표 1 새로운 팬데믹 대비 : 진단검사 플랫폼의 개발 동향
성홍섭 교수(서울아산병원)

15:25~15:45

발표 2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진단검사 전략
김갑정 과장(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15:45~16:05

발표 3 POC 방식의 감염병 대응 진단기술
김상경 단장(KIST)

16:05~16:45

1 좌장 | 이상원 국장(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분석국)

패널 토의
성원근 단장(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이혁민 교수(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훈상 전략기획이사(라이트재단)
정운석 과장(질병관리청 고위험병원체분석과)

16:45~16:50 마무리